

1. 개요

□ 목적 : 정책연구용역 검토 및 현장 심포지움 계획 수립 등

□ 일시/장소 : 2020. 6. 10(수), 14:30~16:30 / 농특위 대회의실

□ 참석자

○ 수산 TF : 이춘우 단장, 정명생·정연송·임정수·조성대·박미선·

김옥식·김정봉·류정곤·김현용·김동현 위원

○ 해수부 : 조일환 과장, 김영민 사무관

○ 사무국 : 임태호 팀장, 박진규·이상규 전문관

○ 용역기관 : 부경대학교 김도훈 교수, 이주현·홍재범 연구원 등

□ 주요내용

○ 수산 TF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 및 검토

○ 현장 심포지움 개최 계획 및 핵심 주제, 준비사항 논의

2. 주요 논의 결과

①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혁신 방안」 착수보고 관련 검토의견

○ 주어진 연구범위와 기간으로 볼 때, 연구과제 완료 및 본위원회 보고안건 정리까지 시간이 촉박한 상황

- 어업 실태 및 문제점 등을 새롭게 파악하는 것 보다는 기존 선행 연구와 논문 등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

- 최근의 어업실태 및 정책이슈 등 자료 필요 시, 추가조사 진행

- 실태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해외사례 벤치마킹 필요. 특히, 어선어업 분야에서 세계적 강국인 노르웨이 사례를 참고할 필요
 - 노르웨이도 오늘날 국내 어선어업이 처한 현실적 문제를 동일하게 경험한 바 있고, 정부와 어업인 간 대타협을 통해 수산업 선진국으로 도약
 - 노르웨이 사례조사를 통해 어선어업 및 어업인 관련 문제점, 수산자원 관리 및 어선 감척 등 어업구조조정 성공사례, 정부 지원정책 등 분석 필요
 - 참고로, 노르웨이는 사회보장제도,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, 대어업인 교육활동 등을 통해 어업 근대화 및 최첨단 산업화 견인
- 어선 감척 등 구조조정에 따른 보상금 현실화, 퇴출 어업인 전직지원 대책 등 실질적 대안마련을 통해 어선 감척 및 수산자원 관리 등 정부정책에 대한 어업인 참여율 제고 필요
- TAC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많은 업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, 관련 정부정책 지원 강화와 소요예산 확보 필요
- 수산자원량 평가의 경우, 정부의 어선감척정책 호응도 제고를 위해 어업인이 납득할 수 있는 평가방법(회유성 및 정착성어종 구분 등)과 평가체계 구축 필요
- 수산물 생산량은 2,700여척에 불과한 근해어업에서 약 60%(냉동상태), 4만여척에 달하는 연안어업에서 약 40%(선어상태) 생산. 향후, 고품질 수산물 제공과 다수 어업인의 어가수익 증대를 위해 선어 중심의 연안어업 생산량 제고 필요
 - 근해어선의 우선적 감척을 추진. 특히, 남획업종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감척 필요
 - 연안어업의 경우, 정부지원 중심으로 하되 소규모 연안어업인을 대상으로 직불제 등 복지형 정책으로 추진 필요

② 연구용역과제 관련 심포지움 개최 검토의견

- 개최 목적 : 농특위 수산TF 정책연구과제의 학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연구의 질적 향상 도모
- 일시/장소 : 2020년 7월 23일(목) 14:00~, 제주시 라마다호텔
- 개최 방식 : 농특위와 제주해양포럼과 공동개최
- 논의 주제 : 수산자원관리(감척 포함), 어업제도, 어선현대화
- 사전 검토 사항
 - 과업지시서 상 현장 간담회와 중복성으로 심포지움 개최 필요성에 대한 사전 내부검토 필요
 - 농특위, 해양포럼, 학회, 용역기관 예산 분야 검토
 - * 농특위 : 사무국 직원 및 수산TF 위원에 대한 여비 지급
 - * 제주도 해양포럼 및 학회 : 행사 장소 및 석식 제공, 발표 및 토론 수당 예산 지원 가능여부 검토
 - * 용역기관 : 발제자 및 토론 수당 지급, 현수막 및 자료집 발간비용 등
- 수산TF 단장 당부사항
 - 심포지움 개최 관련 준비사항 등은 관계자 미팅을 통해 추후 별도 논의

3. 향후 일정

- 심포지움 개최 관련 내부 검토 및 별도 논의(6월 중)
 - ※ 수산경영학회로부터 심포지움 개최 관련 협조요청 공문 수령 → 사무국 내부 검토 및 원칙 수립 → 수산 TF 단장, 학회, 연구진 등과 개최 관련 별도 논의